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Shared Leisure Time with Spouses and Marital Satisfaction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부 교수 이 기 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구 혜 령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Ki Young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Air & Correspondence Univ.

Prof. : Oi Sook Kim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Hye Ryung Koo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선행연구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

- 1) The amount of shared leisure time with spouses.
- 2) The differences of the amount of shared leisure tim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 3)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amount of shared leisure time. Data for 291 couples were gathered from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ime diary.

The major findings were ;

- 1) Spouses spent together 2 hours and 8 minutes on the average per day in leisure. Time for active leisure was 1 hour and 36 minutes, while that for passive

leisure was 32 minutes.

2) The total shared leisure tim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usband's age, degree of husband's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of wife. The active shared leisure time were related number of children and husband's age. And the passive shared leisure time were related to degree of husband's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of wife.

3) The more couples spent together in leisure, the higher their marital satisfaction became.

I. 문제의 제기

최근에 와서 산업화와 기계화의 진전으로 개인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연금제도의 개선 및 의료기술의 진보로 인해 조기은퇴 및 인간의 수명연장이 보편화됨에 따라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일생의 많은 부분을 여가로 보내게 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가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유재량소득이 증가하여 여가욕구가 커지면서 여가가 생활의 질이나 만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다(장윤희, 1991).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여가는 생활의 일부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칙을 이루게 되었다.

인간은 혼자서라도 여가를 즐길 수는 있으나 사회적 존재로서, 여가생활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한데(김의숙, 1991)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특히 중요한 여가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Nickols 와 Abdel-Ghany, 1983) 실제로 많은 여가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장윤희, 1991).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데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직장생활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도 중시하는 가치관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조기출퇴근제나 flexitime과 같은 근무시간구조의 변화로 인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증가하고(홍향숙과 박수경, 1994)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부부가 함께 보내는 여가는 결혼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행동을 변경시킬 기회를 갖도록 해주

고, 많은 사건과 스트레스 중에서도 결혼생활의 안정을 이루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결혼의 유지에 중요한 힘이 된다(Hill, 1988). 그러나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하여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여가가 있을 때 그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소일하거나 생활의 만족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본인 뿐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여가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 행해진 여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개인의 여가에 대해서만 주로 이루어졌을 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여가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을 여가활동참여의 중요집단으로 보면서도 여가활동과 가족간의 상호관련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장윤희, 1991,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의 수준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공유여가시간의 수준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으로써,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여가활동의 유형 및 여가시간의 배분경향

여가활동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가활동에 기본이 되는 자원의 존재여부를 밝히고, 기

본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차원을 밝혀야 한다. 이는 현상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기초 위에서 이론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외숙 등, 1992).

이 절에서는 먼저 최근에 발표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한 가지 밝히고 싶은 점은 부부간의 공유여가수준을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는 Orthner(1974)와 안동선(1982)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볼 여가활동의 유형은 개인의 여가활동참여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여가활동의 유형은 참여빈도, 개념적 분류법, 욕구충족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외숙 등, 1992). 여기서는 참여빈도와 개념적 분류법에 의한 여가활동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참여빈도에 따른 여가활동의 유형은 여가활동의 유형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가활동에 따른 참여빈도를 근거로 군집분석이나 요인분석을 함으로써 활동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외숙 등, 1992). 김외숙(1991)과 상유희(1991)은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요인분석을 함으로써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으로 분류하였는데, 자기개발활동에는 취미활동·자학자습, 문화활동·취미강습·교양강좌참석, 운동, 독서·음악감상이 포함되었고, 가정지향활동에는 가족과 대화·자녀와 놀기, 시나나들이·가족과의 외식, 음식만들기·집안 꾸미기, 야외나들이·여행 등이 포함되었으며 종교·사회참여활동에는 종교활동과 사회봉사·사회단체참여활동이 포함되었다. 또한 모임참석, 친구·친지·이웃만나기는 사교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이고, 텔레비전·라디오, 휴식·낮잠 등은 소일의 영역에 해당하였다.

두번째로 개념적 분류법에 따른 여가활동의 유형은 조사대상자나 연구자가 여가활동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내재한 인식의 차원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분류하는 방법이다(김외숙 등, 1992). Orthner(1974), 안동선(1982), Itoh 등(1988), Firestone 과 Shelton(1988), Mecks 과 Maudlin(1990), 한경미와 황덕순

(1990),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1990)는 개념적 분류법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Orthner(1974)는 여가의 유형을 개별 활동, parallel 활동, joint 활동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별 활동이란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혀 요하지 않고 혼자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parallel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긴 하지만 공동의 관심을 일으키는 특별한 자각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이 되는 소극적인 행위를 뜻하며, joint 활동은 행위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참가자들 사이에 중대한 상호작용을 요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뜻한다. 여가유형별로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개별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전체 여가시간의 36.1%, parallel 활동은 24.6%, joint 활동은 31.7%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동선(1982)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여 여가유형을 '혼자형', '남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joint 형', '남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parallel 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여가시간의 분포를 보면, '혼자형'에 보내는 시간의 평균은 전체여가시간의 45.4%, '남편과의 joint 형'에 보내는 시간은 33.7%, '남편과의 parallel 형'에 보내는 시간은 37.2%로써 '남편과의 joint 형'에 보내는 시간이 가장 적고 '혼자형'에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각 유형에서의 시간분포를 보면 '혼자형'에 보내는 시간의 분포는 비교적 그 빈도가 고르지만, '남편과의 joint 형', '남편과의 parallel 형'에 보내는 시간분포를 보면 전체 여가시간의 0-19%에 응답자의 반이나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말에 조차도 남편과 여가를 많이 보내지 못하는 주부가 상당수라고 하겠다. Itoh 등(1988)은 여가와 가장 밀접한 개념으로 사회문화적 활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 시간을 개인발달시간, 가족활동시간, 공동체-사회활동시간으로 분류하였다. 개인발달활동에는 교육, 독서, 신문읽기, 취미, TV시청, 라디오 청취, 스포츠, 길기 및 기타 오락이 포함되고, 가족활동에는 가족구성원과의 잡담 및 대화, 교제가 포함되며 공동체-사회활동에는 친구·지인·동료와의 관계유지 등을 위한 사교, 사회적 활동, 소비자활동 등이 포함

된다. Firestone 과 Shelton(1988)은 기혼취업여성의 여가활동을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적극적 여가활동은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나 집을 떠나서 하도록 요구되는 활동이며, 소극적 여가활동은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이나 집을 떠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능동적 여가활동에는 스포츠, 운동, 사회문화적 행사의 참여에 보낸 시간이 포함되고 수동적 여가활동에는 독서나 TV시청, 휴식과 같은 활동에 보낸 시간이 포함된다. Mecks 와 Maudlin(1990)은 자녀의 여가활동을 구조화된 여가활동과 비구조화된 여가활동으로 이분하였다. 구조화된 여가활동에는 크게 레슨/경쟁적인 스포츠, 조직참여가 포함되고 비구조화된 여가활동에는 적극적인 스포츠, 게임, 야외활동, 취미, 소극적 여가, 음악과 미술활동, 사회적 활동, 행사참여, 쇼핑, 기타가 포함된다. 한경미와 황덕순(1990)은 전업주부의 여가를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소극적인 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에는 창조적인 활동(그림 그리기, 작문, 악기연주, 노래, 연극, 공작 등), 직접하는 스포츠(요가, 캠핑, 소풍, 드라이브 포함), 영화관람 및 문화행사(음악회, 발표회, 박물관, 동물원 구경)와 사교활동(연회, 여행, 기타 사회적 행사)을 포함시키고, 소극적 여가활동에는 대중매체이용(TV·라디오 시청, 음악감상), 독서(책, 잡지, 신문), 한담(전화, 다른 사람과 대화)과 휴식(공상, 낮잠, 앉아서 아무일도 하지 않음)등을 포함시켰다.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1990)는 여가행동을 교제, 휴양, 레저활동, 신문·잡지·책, 라디오, 텔레비전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Hill(1988)은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하지는 않았으나,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약 2시간 32분을 공유여가활동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공유여가시간을 살펴보면, 조직참여에 9분, 사회활동에 35분, TV 시청에 1시간 6분, 부부간의 대화나 독서, 휴식 등의 TV 시청을 제외한 소극적인 여가에 28분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Bryant와 Wang(1990)의 연구에서는 부인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28분

이었고 부부가 함께 여가에 보내는 시간은 2시간 13분이었으며, 여가를 함께 보내는 부부가 전체의 6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여가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학력

안동선(1982)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여가시간이 적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ryant와 Wang(1990)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을 설명해주는 의미있는 변수가 아니었다. White(1983)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쇼핑, 친구방문, 외출, 가사노동, 식사 등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의 공유여가시간을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과의 여가시간을 분석한 김외숙(1977)의 연구에서는 학력과 가족 레크리에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참가일수 간에 관계가 있었고, 학력과 가족과 즐기는 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평일과 토요일은 유의도에 차이가 없지만, 일요일의 경우에는 유의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한경미와 황덕순(1990)의 연구에서는 학력과 주부 개인의 적극적인 여가시간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녀수

White(1983)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쇼핑, 친구방문, 외출, 가사노동, 식사 등의 활동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ill(1988)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많을수록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 개인의 여가활동을 연구한 한경미와 황덕순(1990)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3) 부인의 취업여부

김은미(1993)는 부인의 취업이 부부간의 역할공유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White(1983)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와 부부가 여러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와의 관계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부인이 사회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길수록 부부의 공유활동참여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인의 취업여부가 부부간의 상호작용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4) 연령

안동선(1982)의 연구에서는 30세 미만의 주부가 남편과 가장 많은 시간을 여가에 보내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외숙(1977)은 주부의 연령에 따라 가족과 즐기는 시간과 참여빈도가 다르다고 하면서 20대 주부가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가장 많으며, 30·40대가 갈수록 점차 감소하고 50대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Bryant와 Wang(1990)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주부 개인의 여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Firestone와 Shelton(1988)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적극적인 여가시간은 감소하고 소극적인 여가시간은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한경미(199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부의 적극적인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수준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먼저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결혼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Burr(1973)가 '배우자들의 상호작용이 결혼행복에 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명제가 너무 명백하여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이 후에 Miller(1976), Snyder(1979) 등이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

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White, 1983, 재인용) 또한 Lewis와 Spanier(1979)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수준이 클수록, 결혼의 질이 커진다고 함으로써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이 결혼의 안정과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됨을 시사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의 한 영역으로서 부부공유시간이나 공유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Bryant와 Wang(1990)은 자녀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보다는 부부가 함께 활동을 공유할 때 더욱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다. White(1983)는 부부가 식사, 쇼핑, 친구방문, 외출, 가사노동에 함께 참여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Bryant와 Wang(1990)은 부부의 공유시간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부인이 혼자서 여가, 식사, 가사노동에 보내는 시간보다는 부부가 함께 이러한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더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이나 공유여가활동과 결혼만족도의 관련을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유여가시간이 결혼만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arga(1972)는 이혼율과 가정에서 배우자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양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Duvall(1977)은 부부가 같이 여가를 즐기는 것이 부부간의 만족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부부관계가 확립되는 때인 결혼초 5년내와 자녀가 떠나고 다시 부부만 남는 결혼 18·23년 후의 여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직장인들이 휴일이나 휴가에 더 많은 시간을 부부가 같이 보내면 부부간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혼생활에 결속의 느낌을 준다고도 하였다(안동선, 1982, 재인용). Locke(1974)는 행복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가치가 일치하며, 이들은 부부간의 상호관계가 있는 행위를 더 즐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안동선, 1982, 재인용). Orthner(1975)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커질 때 관계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증가할 것이고 이해가 증진될 것이며, 개인은 결혼의 부정적 결과를 갖는 행동을 변경시킬 기회를 갖

게 된다고 하면서, 부부가 함께 여가에 참여하는 것이 혼자서 참여하는 것보다 더 기능적이고 결혼만족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Hill(1988)의 연구에서는 조직참여, 사회활동, TV 시청, 레크리에이션, 소극적인 여가(TV 시청을 제외)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부부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더 나아가 결혼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yder(1979)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부간의 공통된 흥미와 함께 보내는 여가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을 반영한다고 하면서, 부부의 결혼만족척도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규련(1993)은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을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부부간의 대화가 높고, 부부공동의 여가가 많다고 인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김은미(1993)는 부부간의 역할공유도가 높은 영역으로 여가활동을 들고 있다.

한편, Orthner(1974)와 안동선(1982)은 여가를 유형별로 분류한 뒤,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Orthner(1974)는 여가유형을 배우자를 중심으로 '혼자형', '배우자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joint 형', '배우자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parallel 형'으로 나누어서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배우자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joint 형'이 결혼만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arallel 형' 역시 'joint 형' 보다는 약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선(1982)은 여가의 유형을 '혼자형', '남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joint 형', '남편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parallel 형'으로 구분한 후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남편과 함께 여가를 보낼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지만, 여가를 혼자서 보내는 것과 결혼만족도는 負의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은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여가유형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Ⅲ. 연구방법

1. 변수의 정의

(1) 공유여가시간 및 유형

공유여가시간은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에 보낸 시간을 의미한다.

공유여가시간은 적극적 공유여가시간과 소극적 공유여가시간으로 분류한다. 이는 개인의 여가활동을 개념적 분류법에 의해 유형화한 Firestone 과 Shelton(1988), 한경미와 황덕순(199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이란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나 집을 떠나서 하도록 요구된 활동에 부부가 함께 참여한 시간이며, 소극적 공유여가시간이란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집을 떠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활동에 부부가 함께 보낸 시간을 뜻한다.

공유여가시간의 유형별로 활동을 살펴보면, 적극적 공유여가활동에는 취미, 운동, 여행, 스포츠관람, 친구·동료와의 만남, 환관상제 실시 및 참가, 가족·친척방문, 사회활동, 종교활동, 가족외식, 기타 오락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소극적 공유여가활동에는 TV 시청, 라디오 청취, 대화 및 잡담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2)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부부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를 1점에서 7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공유여가시간은 유형에 따라 어떠한 배분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 공유여가시간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유형별 공유여가시간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3. 연구방법

(1) 조사도구구성,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이기영 등(1994)의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일지

시간일지에는 하루 24시간을 10분 간격의 눈금으로 구획하여 활동이 시작된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를 표시한 후 활동의 내용을 기입하게 하였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했을 경우, 더 우선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차적 행동에, 그렇지 않은 것은 이차적 행동에 표시하게 하였고, 공유시간분석을 위해 어떤 활동에 함께 한 사람도 기입하도록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질문지와 평일, 토요일, 휴일 삼일분의 시간일지를 부인과 남편이 각각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로 하였다. 1992년 가을부터 1993년 봄에 걸쳐 회수된 330쌍의 질문지 중에서 291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고로 남편과 부인이 같은 날의 시간일지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같아야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아니었고 다소의 성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편이 응답한 공유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자료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평균, 일원분산분석, Duncan-test, 중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이기영 등(1994)의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 32-1),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대한가정학회지

32-3)에 제시되어 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형에 따른 공유여가시간의 배분

유형에 따른 공유여가시간의 배분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평균시간이란 특정 여가를 부부가 함께 보낸 경우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부를 모두 포함하여 평균을 낸 시간이고, 행위자율이란 전체 부부중에서 특정 여가를 함께 보낸 부부의 비율을 의미한다.

<표 1>을 보면 요일에 따른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먼저, 평일의 공유여가시간은 약 1시간 18분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의 1시간 12분이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소비되었고, 6분만이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소비되었다. 또한 소극적인 여가활동의 대부분이 TV 시청(58분)에 보내졌는데 이는 전체 공유여가시간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평일 공유여가활동의 대부분이 TV시청에 보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요일의 공유여가시간은 평일에 비해 약 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의 경우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여가활동에 보낸 시간(2시간 7분)이 적극적 여가활동에 보낸 시간(46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TV시청(1시간 46분)에 보낸 시간이 가장 많았다. 적극적 공유여가활동의 경우를 보면 친구·동료와의 만남(14분), 가족·친척방문(14분)활동이 평일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외 가족외식(5분)이나 운동·산책(6분)에 보낸 시간이 증가하였다.

일요일의 공유여가시간은 총 5시간 32분으로 나타났는데, 일요일의 두드러진 특징은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적극적 공유여가에는 2시간 25분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일의 약 24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요일에 비해서는 약 3.2배가 많은 것이다. 적극적 공유여가의 활동 중에는 종교활동에 보내진 시간(37분)이 가장 많았고, 운동·산책(31분), 가족·친척방문(28분), 친구·동료와의 만남(23분)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극

〈표 1〉 유형별 공유여가시간의 배분

(단위 : 시간,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전체평균시간	행위자율(%)	전체평균시간	행위자율(%)	전체평균시간	행위자율(%)
소극적 공유여가	1.12	77.3	2.07	82.1	3.07	92.4
TV 시청	0.58	68.0	1.46	78.7	2.41	87.6
음악감상	0.01	1.4	0.02	2.4	0.02	3.8
대화 및 잡담	0.13	27.5	0.19	27.8	0.24	22.6
적극적 공유여가	0.06	8.6	0.46	27.8	2.25	59.8
취 미	0.01	1.4	0.03	2.7	0.04	3.4
운동·산책	0.01	2.4	0.06	6.2	0.31	20.3
여 행	0.00	0.0	0.00	0.3	0.05	1.7
스포츠관람	0.00	0.0	0.00	0.0	0.01	0.3
관혼상제 참가	0.00	0.3	0.01	6.9	0.04	11.7
친구·동료 만남	0.00	0.0	0.14	0.3	0.23	3.1
가족·친척방문	0.01	0.7	0.14	7.2	0.28	10.7
사회활동	0.00	0.0	0.00	0.3	0.01	1.0
종교활동	0.02	3.1	0.01	1.7	0.37	21.3
오락(영화관람등)	0.00	1.0	0.02	8.6	0.04	11.3
가족외식	0.01	0.3	0.05	1.7	0.07	3.1
총 공유여가시간	1.18	79.4	2.53	87.6	5.32	96.6

적 공유여가활동에는 약 3시간 7분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의 대부분이 TV시청(2시간 41분)에 보내졌다.

이를 하루 평균 공유여가시간으로 환산하면 도시근로자가정의 부부는 2시간 8분을 공유여가활동에 보내고 있고, 소극적 공유여가활동과 적극적 공유여가활동에 각각 1시간 36분, 31분을 보내는 것이 된다.

한편, 행위자율에 따른 공유여가활동의 배분을 보면, 공유여가시간의 배분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비율이 평일에서 주말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소극적 여가에 참여하는 부부의 비율이 적극적 여가에 참여하는 부부의 비율보다 높다. 평일의 경우, 소극적 여가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전체의 77.3%이고, 적극적 여가에 참여하는 경우는 8.6%로 나타났다. 특히, 소극적 여가중에서 TV시청을 함께하는 부부가 전체의 68.0%로 나타나, 소극적 여가에 참여하는 부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토요일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고 전체 부부의 82.1%가 소극적 여가에 함께 참여하였고 27.8%의 부부가 적극적 여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여가에 참여하는 부부의 비율은 일요일이 되면 59.8%로 증가하고, 소극적 여가를 함께 보내는 부부의 비율 역시 92.4%로 높아진다. 요약하면 많은 비율의 부부들이 TV시청이나 대화 및 잡담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일요일의 몇몇 적극적 공유여가활동(운동·산책, 관혼상제 참가, 가족·친척방문, 종교활동, 오락)을 제외하면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유여가시간의 배분

공유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남편의 연령, 자녀수, 남편의 학력, 부인의 취업여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유형별 공유여가시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로 살펴보았다.

먼저, <표 2>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총 공유여가시간과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총 공유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남편의 연령, 남편의 학력, 부인의 취업여부가 있다.

그러나 남편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서는 소극적 공유여가시간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은 남편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총 공유여가시간

(단위 : 시간, 분)

변수	집단구분 (빈도)	※주당 총시간	Duncan-test	F 값
※ 남편의 연령	29세이하 (47)	17.48	A	3.4027 **
	30-39세 (137)	14.36	B	
	40-49세 (53)	14.35	B	
	50세이상 (50)	13.17	B	
자녀수	자녀없음 (55)	16.30		1.2881
	1명 (75)	14.54		
	2명 (115)	14.03		
	3명이상 (41)	14.11		
※ 남편의 학력	고졸이하 (67)	13.75	A	4.5222 **
	대졸이상 (219)	15.26	B	
부인의 취업여부	무 (148)	15.44	A	3.4072 *
	유 (142)	14.02	B	

** p < .05

※ 요일(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따른 공유여가시간의 편차가 크므로, 하루평균 공유여가시간이 아닌 주당 총시간을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 남편의 연령은 부인의 연령과, 남편의 학력은 부인의 학력과 상관관계가 높다(각각 0.87, 0.58). 이 중에서 결과가 보다 명료하게 나타난 남편의 연령과 학력을 영향요인으로 채택하였다.

Duncan-test 결과, 남편의 연령이 20대이고 남편의 학력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의 공유여가시간이 취업주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공유여가시간을 소극적 공유여가시간과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으로 분류한 후의 분석결과를 보기로 한다.

<표 3>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소극적 공유여가시간과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소극적 공유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남편의 학력과 부인의 취업여부가 있다. 전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남편과 함께 소극적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며 남편이 대졸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극적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로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이 20대일 때가 30대 이상의 경우보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자녀가 있는 부부에 비해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이 월등히 많았다. 반면에 소극적 공유여가시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남편의 학력, 부인의 취업여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공유여가시간이 다른 부부에 비해 많은 까닭은 자녀양육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가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의 연령이 20대일 경우에 공유여가시간이 많은 것은 기성세대와는 구별되는 젊은 세대의 특성-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근무시간 외의 직장모임이나 사회활동에 억지로 참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자아개발을 위한 활동이나 가족중심의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만족을 추구하고자 함-을 반영하는 결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극적 공유여가시간

(단위 : 시간, 분)

변수	집단구분 (빈도)	주당 총 시간	Duncan test	F 값
남편의 연령	29세이하 (47)	11.44		.6110
	30-39세 (137)	11.35		
	40-49세 (53)	10.54		
	50세이상 (50)	10.11		
자녀수	자녀없음 (55)	11.17		.3083
	1 명 (75)	11.40		
	2 명 (115)	10.43		
	3명이상 (41)	11.05		
남편의 학력	고졸이하 (67)	9.57	A	3.1715 *
	대졸이상 (219)	11.39	B	
부인의 취업여부	무 (148)	12.18	A	7.4376 ***
	유 (142)	10.08	B	

* p < .1 *** p < .01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유여가시간

(단위 : 시간, 분)

변수	집단구분 (빈도)	주당 총 시간	Duncan-test	F 값
남편의 연령	29세이하 (47)	6.04	A	6.2410****
	30-39세 (137)	3.06	B	
	40-49세 (53)	3.41	B	
	50세이상 (50)	3.06	B	
자녀수	자녀없음 (55)	5.13	A	2.9645 **
	1 명 (75)	3.13	B	
	2 명 (115)	3.20	B	
	3명이상 (41)	3.15	B	
남편의 학력	고졸이하 (67)	3.10		.9713
	대졸이상 (219)	3.47		
부인의 취업여부	무 (148)	3.25		.8956
	유 (142)	3.54		

** p < .05 **** p < .001

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취업주부는 진업주부에 비해 시간제약이 크므로, 부부가 함께 여가를 보내는 데는 많은 장애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3. 유형별 공유시간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공유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을 통제한 후에,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중분류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기에 앞서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결혼만족도는 부부생활에 '신히 만족하지 않는다'에 1점을 주고, '매우 만족한다'에 7점을 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부인과 남편의 결혼만족도 점수가 각각 5.58점, 5.82점으로 나타나

(표 5) 유형별 공유여가시간에 따른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중분류분석

총평균 = 5.58		통제안됨	통제됨
변수	집단구분(빈도)	ETA	BETA
총 공유 여가시간	낮은 집단 (82)	-.12	-.09
	중간집단 (92)	-.17	-.14
	높은 집단 (91)	.28	.12
F = 4.178 ***		.17	.14
		R ² = .27	
소극적 공유여가시간	낮은 집단 (85)	-.24	-.24
	중간집단 (91)	-.01	-.02
	높은 집단 (90)	.24	.25
F = 2.430 *		.16	.16
		R ² = .19	
적극적 공유여가시간	낮은 집단(110)	-.08	-.04
	중간집단(90)	.15	.09
	높은 집단((83)	-.05	-.05
F = 3.978 **		.08	.05
		R ² = .23	

* p < .05, ** p < .01 *** p < .001

※ 공유여가시간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한 것임.

결혼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는 유형별 공유여가시간에 따른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제시되어 있다. 총 공유여가시간이 높은 집단인 경우에, 또는 소극적 공유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 여가에 보내는 시간이 중간인 집단의 경우, 낮거나 높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총 공유여가시간, 소극적 공유여가시간,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은 각각 부인의 결혼만족도의 전체 분산의 약 27%, 19%, 2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유형별 공유여가시간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보면,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총 공유여가시간과 소극적 공유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증가하며, 적극적 여가에 보내는 시간이 보통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총 공유여가시간, 소극적 공유여가시간,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은 각각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전체 분산의 약 24%, 24%, 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남편과 부인 모두 소극적 공유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며,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이 보통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이 보통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적극적 공유여가활동을 구성하는 하위활동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의 많은 부분이 친구·동료와의 만남, 가족·친척방문 등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적인 의무에 의해서 참여하게 되는 활동에 보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행동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여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유형별 공유여가시간에 따른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중분류분석

총평균 = 5.82		통제안된	통제된
변 수	집단구분(빈도)	ETA	BETA
총 공유	낮은집단(82)	.24	.23
여가시간	중간집단(92)	.02	-.01
	높은집단(91)	.23	.22
F = 3.200 **		.17	.17
		R ² = .24	
소극적	낮은집단 (85)	.28	-.30
공유여가시간	중간집단 (91)	.03	.03
	높은집단 (90)	.23	.25
F = 3.792 **		.19	.20
		R ² = .24	
적극적	낮은집단(110)	-.17	-.15
공유여가시간	중간집단(90)	.17	.15
	높은집단(83)	.04	.04
F = 2.472 *		.13	.12
		R ² = .19	

* p < .05, ** p < .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 공유여가시간을 분석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부부의 공유여가활동이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근로자가정의 부부가 공유여가활동에 보낸 시간은 평일 1시간 18분, 토요일 2시간 53분, 일요일 5시간 32분으로,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평균 2시간 8분이 된다. 공유여가활동의 유형별로 보면, 적극적인 유형의 여가활동(32분)보다 소극적인 유형의 여가활동에 함께 보내는 시간(1시간 36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의 적극적인 공유여가시간은 6.08분으로 극히 저조한데, 이는 주말이 되면 증가한다.

평일과 주말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공유하는 활동은 TV시청으로 평일에는 약 1시간, 토요일에는 약

1시간 46분, 일요일에는 2시간 40분을 TV시청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요약해 볼 때도 도시근로자가정 부부는 적극적 여가활동보다는 가정안에서의 소극적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행위자들에 따른 공유여가활동의 배분을 보면, 공유여가시간의 배분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비율이 평일에서 주말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소극적 여가에 참여하는 부부의 비율이 적극적 여가에 참여하는 부부의 비율보다 높다. 많은 비율의 부부들이 TV시청이나 대화 및 잡담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일요일의 몇몇 적극적 공유여가활동(운동·산책, 관혼상제 참가, 가족·친척방문, 종교활동, 오락)을 제외하면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유여가시간의 차이를 보면, 총 공유여가시간은 부인이 취업하지 않고 남편의 학력이 대졸이상이며, 남편의 연령이 20

대인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극적 공유여가시간은 남편의 학력이 대졸이상이며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많았다. 적극적 공유여가시간은 남편의 연령이 20대이고 자녀가 없는 부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3) 총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과의 관계를 보면, 부부가 함께 여가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공유여가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부부가 소극적인 여가활동에 함께 보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적극적인 여가활동의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적극적인 여가에 보내는 시간이 보통인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은 결혼의 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의미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유여가시간의 절대량을 확보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가를 보다 쉽고 값싸게 보낼 수 있는 시설과 보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만족도는 부부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를 단일항목으로 측정된 척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타당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2) 백화점 쇼핑과 같은 반여가적인 특성을 갖는 활동은 여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가족외식은 여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응답자는 백화점에서의 외식 등을 시간일지에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측정에 있어서 문제가 뒤따른다고 하겠다.

(3) 남편이 응답한 공유여가시간과 부인이 응답한 공유여가시간에는 다소 차이가 나므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김외숙(1977). 가족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2).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4) 김은미(1993). 부인의 취업과 부부의 상호작용구조에 관한 한일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1(3), 113-125.
- 5) 안동선(1982).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6)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7) 이기영·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8) 장윤희(1991).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 증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1(1), 61-84.
- 10) 한경미·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11) 한국방송공사(1990). 국민생활시간조사
- 12) 홍향숙·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49-59.
- 13) Burr, W. (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14) Bryant, K. & Wang, K. (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 An analysis of wives'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89-119.
- 15) Duvall, E. M.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J. B. Lippincott Company.
- 16) Firestone, J. & Shelton, B. A. (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woma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

- (4), 478-495.
- 17) Hill, M. S. (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27-451.
- 18) Itoh, S. et al. (1988). Time spent on social-cultural activities by Japanese urban male employees and their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Japan* 39(6), 553-561.
- 19) Lewis, R. A. & Spanier, G. M.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Hill, F. I. Nye and L.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2) edited by. London : Free Press.
- 20) Maudlin, T. & Meeks, C. (1990). Time allocation of one- and two-parent mothers. *Lifestyles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53-69.
- 21) Miller, B. C. (1976). A Multivariate development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643-657.
- 22) Nickols, S. & Abdel-Ghany, M. (1983). Leisure time of husband and wive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2(2), 189-198.
- 23) Orthner, D. K. (1974).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interactions, the Florida State Univ. ph. D.
- 24) Orthner, D. K.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 91-102.
- 25)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26) Varga, K. (1972). Marital cohesion as reflected in time budget. In *The Use of Time*, edited by Alexander Szalai. The Hague : Mouton.
- 27) White, L. K. (1983). Determinants of spousal interaction : Marital structure or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511-519.